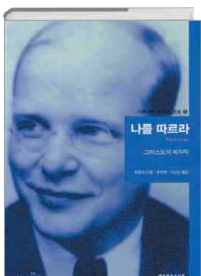


부끄러움을 아는 새 세상을 꿈꾼다

이춘성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 박사과정)

부끄러움은 영광의 상처인가?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처결에 대한 해석은 각 진영의 논리에 따라 분분하겠지만, 역사 현장 속에 있는 우리는 미래의 해석을 고려할 틈이 없다. 전보다 더 많은 매체와 사람들이 말,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보다 믿음과 신뢰의 가치가 값싸게 매겨진 시대는 없었던 것 같다.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대통령과 기억나지 않는다는 청문회 증인들의 부끄럼 없는 얼굴을 보며 지도자들의 민낯을 발견하는 것 같아 오히려 국민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얼굴이기 때문이다.



지금 읽기

『나를 따르라』 디트리히 본회퍼
손규태, 이신건 옮김.
서울: 기독교서회, 2010.

마주한 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윤리적 요청을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타자의 얼굴이 설득이 아닌 계시와 계명과 같이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의 주류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주체라는 개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레비나스는 주체의 철학과 타자의 철학을 가르치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레비나스는 주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된 주체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 나갔다. 얼굴은 이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다. 타자의 얼굴은 절대적 순종을 명령하지만 인간은 그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는 괴리를 경험한다. 다른 말로 '부끄러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비나스에게 주체란 끝없는 토론과 변증, 그리고 이를 통해 승리하여 최고의 자리에 앉아 거칠 것 없는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주체는 당연히 따라야 할 요구에 따르지 않는 부조리한 자아를 발견하고 한없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사람들은 어떤 주체에 더 매력을 느낄까? 부끄러움 때문에 한 발짝도 디디지 못하고 있는 피동적인 주체와 승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영광의 상처로 치부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 사이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울까?

얼굴의 철학자인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이 얼굴과

부끄러움은 그리스도교 세상Christendom에 어울리는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리스도교의 확산과 교회의 점진적인 세속화와 더불어 값비싼 은혜에 대한 인식은 점차 상실되었다. 세상은 그리스도교 세상으로 변했고, 은혜는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그것은 값싸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나를 따르라, p.38) 이런 인식은 초대교회의 회심 사건을 연구한 알렌 크라이더(Alan Kreider)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의 회심 사건에는 신념belief, 소속belonging, 행동behavior의 변화라는 세 가지(3B)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요소들 중 소속은 교회라는 새로운 나라, 가족, 집의 일원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말이다. 그러므로 변화된 신념과 행동의 변화는 교회라는 새로운 영역 속에서 먼저 실천되었고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였다. 하지만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전도는 제국의 영토 확장과 함께하는 강압적인 것으로 변질되었으며, 교회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되었다. 세상은 그리스도교 세상(크리스텐덤, Christendom)이 되었고, 기독교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었다(회심의 변질, 서론과 1,4장 참조).



지금 읽기

『회심의 변질』 알렌 크라이더
박삼중, 신광은, 이성하, 전남식 옮김
대전: 대장간, 2012.

부끄러움과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라는 새로운 소속감은 이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이러한 구도를 보여 주는 성경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가 줄 불과 성령세례에 대해 언급한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3절), 자신의 죄에 부끄러움을 느낀 무리와 세리, 군인들이 차례로 나아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다.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한다(11~14절). 이는 단순히 신념의 변화를 위한 내적인 결단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변화를 실천해야 할 곳은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중세의 그리스도교 세상(Christendom)과 같은 유대교 세상이었다. 그곳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이 유대교의 성공이란 등식이 유효한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부끄러움은 변화를 지속시키지 못했으며 전략적으로 승리를 위해 무시해야 할 감정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진정한 메시아를 요구한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줄 회개의 세례는 능력과 함께 불과 성령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였다(16절).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다. 불 같은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 후 베드로와 사도 앞에 무리들이 나아왔다. 이들은 자신의 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행 2:37)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들었던 동일한 질문이 다시 반복된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신념과 행위는 변화되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누가복음 3장에는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공개된다. 바로 이들의 변화된 행위를 실천할 장소가 세상(유대교 세

상 혹은 로마 세상)이 아닌 교회라는 새로운 세상이었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참된 정체성과 소속감을 주는 새로운 나라이자 가족이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확실히 구별된 공동체로서, 기독교인의 신념과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하고 당연한 소속감을 제공하는 유형적 공간이며 관계였던 것이다.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회개로 부터 시작한 사람이며 기관이다. 태생적으로 승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뒷전에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거나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불가능한 비전을 꿈꿀 때, 교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공동체로 변질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꾸겠다는 세상과 닮아 갈 것이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전히 알려 주고 있는 교훈 아니겠는가!



『회심』 짐 월리스
정모세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8.

기독교인은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를 통해 참 생명을 얻은 존재이다. 그리고 회개는 변화(3B)라는 당연한 열매를 맺는다.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문서는 회개 앞에 “생명에 이르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이는 회개의 행위가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성도라는 자의식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자각한다. 만약 이 부끄러움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아가 부끄러움의 인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단순한 얕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더 깊은 신학적인 논의는 짧은 이 글에서 다룰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개는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란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회개는 참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얻는 거짓 부끄러움일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부끄러움과 회개를 아는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어떤 이는 침묵하고 그냥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다. 하지만 침묵이 필요한 시대라 하여도 이것만은 잊지 말자. 교회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법조인, 교사, 노동자, 상인 등)을 할 때, 그 소명은 세상이 부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하나님 나라)이 부른 것이란 사실이다. 나아가 이 새로운 세상은 부끄러움을 아는 세상이며,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다.

루터에게 값비싼 은혜가 선사되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그것이 마른 땅 위의 물이 되었고, 불안에 대한 위로가 되었고, 스스로 택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며, 모든 죄를 용서하기 때문이다. 그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그것이 행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 직으로의 부름을 무한히 강조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은혜는 값비싼 것이었다. 바로 이 점에서 제자의 길은 은혜였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복음의 비밀이었으며, 죄인을 의롭게 하는 비밀이었다.(나를 따르라, p.41)